

市西 金璇의 삶과 시문학 연구

김귀석*

<차 례>

1. 머리말
2. 生涯와 文學作品
3. '疏'의 현실의식
4. 문학적 성정
 - 1) 憂國之情
 - 2) 安貧樂道
5. 맺음말

<국문초록>

市西 金璇(1568~1642)은 조선 중기 나주 출신의 학자요, 문인이다. 그는 과거를 포기하고 평생을 布衣로 살았으나, 선조, 광해, 인조시대의 壬丙兩難은 물론 광해의 亂政과 反正 등 많은 내우외환 속에서도 명분과 대의를 지킨 유학자였다.

시서는 광해원년(1609)에 五賢書院請額疏를 올려 나주의 錦陽書院이 景賢書院으로 賜額을 받는데 앞장섰다. 또한 이듬해인 광해 2년(1610)에는 道內 儒林의 疏頭가 되어 文廟의 東方五賢 配享을 위한 請五賢從祀疏를 주창하여 광해군의 허가를 받았다. 이는 前代의 己卯, 乙巳土禍로 인한 사회적 퇴폐분 위기를 일신하고 정통유학의 政論을 확립하여 文風을 통한 학문적, 사회적 교화를 이루려는 儒者의 현실의식을 조정이 반영한 것이다.

시서는 도학자이기에 앞서 시인이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좋아하여 짧은 시에 힘을 기울였으며, 생전에 1200여 수의 漢詩 作品을 남겼다.

시서 시의性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憂國之情이다. 그가處

* 동신대학교

했던 시대가 亂世였기에 나라와 君主에 대한 단순한 哀傷과 念慮가 아닌 憤懣慨然한 憂國語調가 수 편의 시문에 표출되어 있다.

둘째는 安貧樂道이다. 시서는 을묘년(1615), 그의 나이 48세 때 과거를 포기하고 향리에서 五樂亭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그는 형제, 처자, 시와 술 그리고 거친 음식과 貧窮을 五樂으로 삼았다. 窮하면서도 義를 잃지 않는 것을 樂道라 여겼다. 그것은 老莊의 無慾이 아닌 儒者의 분수로 시서는 그것을 가장 편하게 여겼고 또 그의 삶처럼 그의 시에서 즐겼던 것이다.

핵심어 : 布衣, 五賢書院請額疏, 正統儒學, 憂國之情, 安貧樂道, 老莊의 無慾.

1. 머리말

한 時代의 文人과 文學作品을 연구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作品世界와 文學精神을 살펴보는 意味도 있지만 當時의 시대형편과 그 시대에 사는 인간의 思考體系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意義있는 일이다. 특히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묻혀 後代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문인, 학자들이 많음을 볼 때 그 아쉬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朝鮮中期 湖南出身의 문인이며, 학자였던 市西 金璇(1568~1642)에 대해 주목하고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 宣祖, 光海, 仁祖의 세 왕조를 거치면서 壬辰倭亂, 丁卯胡亂, 丙子胡亂 등 三大兵亂은 물론 광해군의 亂政과 仁祖反正 등 內憂外患이 어느 시대보다 많았던 亂世에 激浪을 겪으면서도 결코 명분과 대의를 잃지 않고 毅然하게 선비의 道를 지킨 市西 金璇의 삶과 문학을 조명하고자 한다. 먼저 그 기분이 되는 생애와 문학작품을 살펴보고, 君主에게 올린 疏를 통해 시국에 대한 현실의식을 파악하고, 시 작품을 통해 그의 문학적 성정

을 살피는데 글의 순서를 두었다. 시서가 지은 1200여 수의 한시 작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家族關係 61, 佛敎 72, 哀悼, 離別詩 64, 憂國 85, 知人 및 친구 239, 風景(物) 286, 人生 (삶) 315, 기타 80 首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많은 漢詩 作品들이 그렇듯 작품의 전반적 분위기는 그것을 창출한 작가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의식과 삶에 크게 기인한다. 憂國과 安貧樂道는 市西 漢詩의 중요한 테마를 이룬다. 이제 그의 시작품을 통해 市西 金旻의 삶과 문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生涯와 文學作品

金旻(1568-1642)의 자는 而獻이며 호는 市西 또는 之而子이다. 본관은 光山이다. 그는 선조 2년(1568) 전남 나주에서 副護軍인 부 富成과 모 羅興閔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9代祖 金德龍이 조선시대 大司憲을 역임한 후 나주로 移住하여 누대에 걸쳐 생원, 진사, 과거급제 등 많은 관리들을 배출하였다. 金旻은 9세에 모친을 잃고, 11세 때 軍藏寺 淡俊스님에게 同鄕 石村 林子愼과 함께 수학하였다. 이때의 배움은 어린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후에 불교 관계의 詩作을 많이 한 계기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¹⁾ 市西는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戊寅今日軍藏寺 무인년 오늘 군장사로
負笈初從淡俊師 책보 메고서 처음 담준 스님 따랐네
年月計今經四十 세월을 지금부터 헤아리니 40년이 흘렀으니
中間人事幾遷移 그 가운데 사람의 일이 얼마나 변했는가?

‘무인년(1578) 5월 9일 모친상을 탈상하고, 6월 9일에 군장사의 담준

1) 『市西遺稿』에 수록된 1200여 수의 詩 중 불교관계의 시가 72수가 실려 있음

스님에게 가서 배웠다. 그 절은 입자신의 齋宮인데 매년 이날이면 옛일을 느낀다.’²⁾고 회고한 것에서 그의 인생에서 담준 스님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市西는 그의 나이 14세 때 本州의 교수 곽기수에게 학업하였으며, 18세에는 제독 박이장에게 『중용』과 『대학』을 배우기도 했다. 그 후 해주판관을 지낸 김계도에게 배우기도 했으나 이 모두가 일시적인 私事에 불과할 뿐 특별한 스승을 두고 그 문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배움을 갖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市西遺稿』 序文을 쓴 蘆沙 奇正鎮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삼가 공의 행장을 상고하건대, 공이 한 때 어울린 친구들은 매우 성대한데 공부를 가르친 스승의 성명은 드러나지 않으니 아마도 스스로 얻은 것이 많음이니라.”³⁾

市西는 나주 景賢書院에서 睡隱 姜沆, 盤桓 洪千瓊과 함께 서로 앞을 다투어 학업하였으며 특히 경전에 마음을 기울여 주야로 학문에 열성을 다하였다. 그는 또한 담력이 크고 성격이 쾌활했으며 교우지간의 우의도 돈독하여 서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그 때 市西와 관련된 逸話를 丈巖 鄭謫는 『市西遺稿』 行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찍이 친구들과 경현서원에서 공부하였다. 당시 한 여름이어서 좌정한 사람들이 모두 옷고름을 풀고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들보 사이에서 떨어져 공의 배 위에 가로 누웠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흩어졌으나 공은 낮빛이 변하지 않고 이천처럼 책을 보다가 구렁이가 물러나자 비로소 일어나니 사람들이 공의 큰 국량에 감복하였다.”⁴⁾

2) 『市西遺稿』, 455쪽, “戊寅五月九日, 脫母喪, 6月初九日, 往學俊師于軍藏寺, 寺乃子愼齋宮, 每年此日感舊.”

3) 『市西遺稿』, 『序』, 5쪽, “謹按公行狀, 公一時儕友甚盛, 而其傳業之師, 不露姓名, 盖公自得爲多.”

4) 『市西遺稿』, 『行狀』, 636쪽, “嘗與儕友, 肄業於景賢書院, 時當盛夏, 一坐皆披襟偃息, 忽有巨蟒, 墮自椽椽間, 橫於公腰腹之上, 衆皆駭散, 而公色不變, 看書如故, 事退乃起, 人服其弘量焉.”

市西 金巖은 그의 나이 20세 되던 선조 20년(1587)에 靈光監試를 시작으로 茂長監試(1588), 井邑監試(1589) 등 선조 38년(1605) 司馬試에 이르기까지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수많은 會, 別試에 합격하여 그 학문과 문학적 재능을 보였다. 무신년(1608)에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한 후 대북파가 정권을 잡고 이이첨, 정인홍 등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자 이를 비판하다 科擧를 정지 당하는 불운을 겪게 된다. 그는 경술년(1610)에 유생들의 상소를 앞서서 주창하여 다섯 현인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임금에게 청하였다. 또한 광해군 6년(1614) 仁穆大妃의 廢母論에 반대한 完平府院君 李元翼(1547~1634)이 洪川으로 귀양가자 市西는 그 부당함을 상소하기 위해 호남의 유생들을 이끌고 상경하러다 체지당하고 그로 인해 成均館에서 삭적되어 생원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결국 市西는 성균관을 비롯 네 관서에서 주관하는 과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大義와 名分이 합몰된 세상을 분개한 市西는 즉시 과거를 포기하고 世事와 작별하는 것이 자신의 분수라 여기고 향리인 나주의 竹林에 五樂亭을 짓고 은거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공은 시사에 분개하여 마침내 공명에 대한 생각을 끊고,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며, 몇 칸의 정사를 성 서쪽의 죽림 가운데 세우고, 오락정이라는 편액을 다니 형제요, 처자요, 시와 술이요, 빈곤을 편안하게 여깁시오, 도리를 즐겁이다. 이 다섯 가지가 공이 말년에 즐긴 바이다. 서문과 시를 지어서 다섯 즐거움의 의의를 얘기하고, 문미의 사이에 써놓고 분수에 따라 추구함이 없는 것이 곧 공의 뜻이다.”⁵⁾

文巖 鄭澹가 『市西遺稿』 行狀에서 밝힌 것처럼 市西는 세상을 등진 채 오락정에 은거하면서 仁義의 근원과 禮樂, 老, 莊의 道를 窮究하며 독서와 詩酒로 隱逸하였다. 그 후 인조 6년(1628) 裕陵參奉, 인조 7년(1629) 察

5) 『市西遺稿』, 「行狀」, 638쪽, “公憤切時事, 遂絕意於功名上, 杜門屏跡, 構數間精舍於城西竹林中, 扁以五樂亭, 蓋兄弟也, 妻子也, 詩酒也, 安分也, 樂道也 是五者, 爲公末年所樂故耳, 作序若詩, 道五樂之意, 而揭諸楹間, 隨分無求 即其志也.”

訪, 인조 9년(1931) 靖陵參奉에 계속하여 제수되었으나 稱病하고 벼슬을 모두 사양하였다. 특히 知友인 谿谷 張維, 畸庵 鄭弘溟이 누차 권면하였으나 이때마다 市西는 “ 헛된 명예가 지나치게 높으니 이는 위로는 하늘을 속임이요, 아래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⁶⁾ 하며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청에 항복하자 “주군이 옥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⁷⁾ 고 義를 제창하였으나 세자와 대군이 불모로 잡혀가자 市西는 세상의 일에 뜻을 잃고 詩酒로 여생을 보내다가 인조 20년(1642) 2월 향년 75세의 일기로 五樂亭에서 생을 마쳤다.

市西의 문학작품이 실려 있는 『市西遺稿』는 원래 2卷 1冊으로 된 詩文集으로 고종 7년(1870)에 활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이후 후손들에 의해 1975년 초간본을 보완하여 重刊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卷 1은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진 1200여 수의 방대한 시가 수록되어져 市西의 폭넓은 文學世界를 보여주고 있다. 卷 2는 雜錄으로 景賢書院의 請額上疏, 從祀上疏, 五樂亭記, 金江十一人契序 등을 비롯 序文, 上樑文, 祭文 등 모두 56편의 글이 실려 있다. 또한 부록에는 年譜, 行狀, 跋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에는 2卷 1冊의 詩文集을 한글으로 묶은 國譯 『市西遺稿』가 한글로 번역 간행되기도 하였다.

市西는 평생 비록 布衣로 지냈으나 谿谷 張維, 石川 林億齡, 石村 林愷, 長洲 尹暉, 觀海 林楡, 畸庵 鄭弘溟 등 많은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經典과 道學의 나아가는 방향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음양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시를 좋아하여 고문 읽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짧은 시에 힘을 들였다. 특히 만년에는 조선시대 시문이 크게 갖추어져 극에 달했음을 알고 李達, 崔慶昌 등 당대의 많은 작가들이 盛, 晚唐의 시인들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그의 시문집 <自序>에서 밝히기도 했다.⁸⁾

6) 『市西遺稿』, 「重刊序」, 6쪽, “公輒以虛譽過隆, 上以欺天, 下以欺人.”

7) 『市西遺稿』, 「行狀」, 641쪽, “主辱臣當死.”

8) 『市西遺稿』, 「自序」, 3쪽, “우리 동방의 신라와 고려의 시는 내 취할 것이 없다. 우

3. ‘疏’의 현실의식

市西 金獻은 광해 원년(1609) 그이 나이 42세 때 나주 錦陽書院에 대한 賜額上疏를 조정에 올려 ‘景賢書院’으로 그 額號를 하사받았다.⁹⁾ 상소의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 유학을 숭상하고 도리를 중시함은 정치를 하는 큰 요체요, 사당을 세워 현인을 본받음은 나라를 다스리는 급한 일입니다. 때문에 옛날의 현명한 계왕들도 모두 사문을 진작하고 선유를 포상하여, 국가의 명맥을 두터이 하고 원기를 배양함을 앞세운 것입니다. 었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위로 이전의 현인을 존중하던 예절을 생각하시고 아래로 신등의 사약을 청하는 간절함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중략) 아이! 대대로 성인의 조정에서부터 안으로는 성균관의 유생에서부터 밖으로는 먼 지역의 선비에 이르기까지 상소문을 들고 밭에 각반을 메고 누차 배향의 청원을 진술하였으나, 아직 윤희를 받지 못하여 맑은 조정의 성대한 의전에 어긋나 사람의 깊은 유감에 이르렀던 것인즉 먼저 사약의 명령을 내리시고 다음으로 배향의 의견을 거행하신다면 더욱 다행이겠습니다.”¹⁰⁾

리 조선에 이르러 시문이 크게 갖추어졌고, 선조 시대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이를 보면 金時習(梅月堂), 金麟厚(河西), 朴祥(訥齋), 鄭士龍(湖陰), 朴淳(思庵), 李後白(青蓮), 盧守愼(蘇齋), 李山海(鶴溪), 崔崧(簡易), 林德龍(石川), 梁應龍(松川), 柳根(西湖), 李廷龜(月沙), 車天輅(五山), 李達(蓬谷), 崔慶昌(孤竹), 白光勳(玉峯), 林樞(白湖), 許蘭雪軒과 같은 분들이 그 시대를 전후하여 배출되었고, 權澤(石州)에 이르러 조금도 성당, 만당의 시인들에 손색이 없었다. 그 후로 이를 이은 이들이 있긴 하였을 것이지만 나는 아직 듣지 못했다.”

9) 景賢書院은 선조16년(1583)에 나주를 중심으로 한 도내 儒林들이 寒暄堂 金宏弼을 配享하는 사원 건립 상소를 올림에 따라 나주의 서문 밖 대곡동에 그 건립이 허락되었고, 당시 羅州牧使 金諫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듬해인 선조17년(1584)에 錦陽書院이란 명칭으로 창건되었다. 금양서원은 그 후 나주목사로 부임했던 任允臣이 지방 유생 나덕준의 발의로 선조22년(1589)에 一畝 鄭汝昌, 靜庵 趙光祖, 晦齋 李彥迪, 退溪 李滉 등 4위(位)를 함께 配享하는 五賢祠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五賢書院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고 광해군 원년(1608)에 다시 중건을 하고 이듬해인 1609년에 金獻 등 호남의 유생들이 사약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景賢>이란 額號를 하사받았다.

10) 『市西遺稿』, 『五賢書院請額疏』, 524쪽. “嗚呼! 崇儒重道, 爲政之大要, 立祠象賢, .

市西는 儒學을 崇尚하고 道理를 중시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며, 賢人을 본받기 위해 사당을 세우는 일이 나라를 다스리는 급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孔孟程朱의 전통 유학을 治國의 根本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당을 세워 賜額함으로써 賢人을 配享하는 것이 옳은 도리임을 역설하였다. 그 이듬해(1610)에 市西는 또다시 道內 儒林들의 疏頭로서 대궐에 나아가 東方五賢에 해당하는 조선의 대표적 性理學者인 文敬公 金宏弼, 文獻公 鄭汝昌, 文正公 趙光祖, 文元公 李彥迪, 文純公 李滉 등 다섯 현인을 文廟에 配享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직접 지어 올렸다.

“전라도 나주의 진사 신 김선 등이 살아 목욕제하고 백번 절하면서 주상전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었드려 생각해보니 신등이 듣기에 나라는 도리에서 높아지고 도리는 학문에서 높아지며, 도리와 학문의 어두움과 밝음이 참된 유생의 숨고 나옴은 국가의 성함과 쇠함에 관계된다 합니다. (중략) 었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의 제창에 마음을 두시고 현인을 본받음에 뜻을 예리하게 하시어, 빨리 현명한 다섯 신하로 하여금 배향의 대열에 있게 하신다면 사람의 한 때의 자량이 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천년에 이르는 빛을 더할 것입니다. 미래에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섯 현인이 문묘에 배향된 것은 성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니, 전하의 덕을 높이고 의를 즐기는 명성은 우리 공부자의 가르침과 더불어 천지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리가 동쪽에서 찬연하게 다시 세상에서 빛나고 참된 유생이 배출되어 울창하게 나라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¹¹⁾

前代의 己卯, 乙巳年의 土禍로 인해 당시의 많은 賢人, 선비들이 죽임

有國之急務, 是以古先哲王, 莫不振作斯文, 褒獎先儒, 爲厚國脈培元氣之所先, 伏願殿下, 上稽前古尊賢之禮, 下察臣等請願之懇, (中略) 嗚! 越自列聖之朝, 內而太學之生, 外而遐方之士, 絨章裹足, 累陳從祀之請, 尙未蒙聖允, 以虧清朝之盛典, 因致士林之深憾, 則先下賜額之命, 次舉從祀之典, 尤不勝幸甚.”

11) 『市西遺稿』, 『請五賢從祀疏』, 525, 530쪽. “全羅道羅州進士, 臣金獻等, 謹齊沐百拜, 上言于主上殿下, 伏以, 臣等聞, 國尊於道, 道尊於學, 道學之晦明, 係於眞儒之隱顯, 眞儒之隱顯, 關於國家之盛衰, (中略) 伏願殿下, 存心倡學, 親志象賢, 亟令五臣之賢, 俾繼從祀之列, 則不但爲士林, 一時之榮式, 而增泮宮億載之光輝也, 有辭於來許者, 必曰五賢之從祀文廟, 自聖君始, 而殿下尊德樂義之光, 則當與吾夫子之化, 共天壤而俱歿矣, 然則吾道其東, 燦然復明於世, 眞儒輩出, 蔚爲邦國之植矣.”

을 당한 후 학문은 더욱 퇴폐해졌고, 선비는 제 각기 논의에 빠져 正論을 구하지 못하고 異端과 邪說만이 횡행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퇴폐적 분위기는 비단 政治的인 이유 외에도 國家의 賢人을 崇尚하는 典禮가 없는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크게 한탄한 市西는 儒林의 疏頭가 되어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를 직접지어 올린 것이다. 市西가 그의 上疏에서 五賢을 文廟에 配享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아 우리의 도리가 전해지지 않은 지 오래 되었고, 참된 유생이 일어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왜 일까요? 기묘년의 액운으로 현인들이 다 하였고, 을사년의 사건으로 준수한 선비들이 모두 시들었습니다. 동한의 당고의 남긴 재난으로 끝내 죽림의 청담이 일어났으니, 배 모자와 가죽 띠의 선비들이 마을에서 배척을 받고 도리를 이야기하고 덕을 실천하는 유생들이 사우들에게 절교를 당하니, 이렇게 시작된 끝을 이미 구할 수가 없으면서 지금까지 60년간 유학의 풍조가 삭슬이가 되었습니다. 선비는 경해진 견해가 없고, 사람들은 학문을 사사로이 행하고, 논의가 제멋대로 생겨나며 공부에 갈래가 많아져서, 어지럽게 이단의 말들이 날로 넘쳐나니, 어찌 국가의 현인을 숭상하는 전례가 빠져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¹²⁾

市西 金璣의 간곡한 上疏는 바로 전하의 允許를 받지는 못했으나 각 지방의 유림들의 상소와 함께 五賢의 從祀가 조정에서 논의되어 그 해 7월 16일(경술년: 1610) 임금의 허가를 받게 되었다.¹³⁾ 주지하다시피 朝

12) 『市西遺稿』, 『論五賢從祀疏』, 530쪽, “嗚呼! 吾道無前遠矣, 眞儒之不作久矣, 何者? 己卯之厄, 賢流打盡, 乙巳之鼠, 俊士咸卒, 東京黨錮之餘禍, 終作竹林之清談, 則布冠韋帶之士, 被斥於閭巷, 談道衣德之儒, 見絕於師友, 蓋靡之末流, 已不可振救矣, 而至于今六十年間, 儒風掃地盡矣, 土無定見, 人私其學, 論議橫生, 術業多歧, 紛紛異言, 日出有餘, 豈非國家崇賢之典有所缺而然也?”

13) 『朝鮮王朝實錄』 태백산사고본(영인본), 26책, 663쪽, “예조가 아뢰기를 오현의 종사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니 원평부원군 이원익은 ‘신은 전에 하문하였을 때 이미 모두 전달하였으며, 지금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는 오직 성상이 결단하시어 시행하는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다시 무슨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였고, 영의정 이덕형과 좌상 이항복과 우상 심의수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 다. 하니 드디어 종사를 허락하였다.”(『禮曹啓曰, 五賢從祀議于大臣, 則完平府院君李元翼以爲, ‘臣前於下問時, 已盡陳達, 今無他說, 唯在聖上斷然行之, 更何待乎?’ 領議政李德馨, 左相李恒福, 右相沈壽壽, 可皆以爲可從, 遂許從祠.)

鮮中期는 觀念에 머물던 性理學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道學으로 진전하는 학문적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또한 朋黨체제가 확립되는 정치적 변화를 맞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한 학문 및 정치적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士林의 세력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또한 이들 사림은 연산조와 중종, 명종조를 거치면서 여러번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여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끌었지만 士禍 뒤의 弊害 또한 그 사회적 과장이 결코 작지 아니 하였다. 市西가 道內의 많은 선비들과 뜻을 모아 다섯 賢人의 文廟配享에 앞장선 것도 正統儒學의 正論을 확립하여 文風을 통한 學問的, 社會的 教化를 이루고자한 것에서 朝鮮中期의 儒者인 市西 金璣의 현실의식을 살필 수 있다.

4. 문학적 성정

1) 憂國之情

市西 金璣이 생존했던 宣祖, 光海, 仁祖조는 그 어느 시대보다 內憂外患이 많았던 어려운 시기였다. 선조 25년(1592)의 壬辰倭亂을 비롯해서 인조 5년(1627) 丁卯胡亂, 인조 14년(1636) 丙子胡亂 등 이 미증유의 전란들은 조선사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국가체제와 사회질서는 문란해지고 가치관과 윤리의식은 황폐해졌다. 더구나 光海君의 亂政과 仁祖反正 등 술한 사건들은 더욱 조선 사회를 퇴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고 문란해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禮)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다. 따라서 性理學의 심화과정에서 그 表裏關係를 형성하고 있는 실천적 학문인 禮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학문의 방향도 기존의 관념과 이론중심의 성리학에서 보다 진전된 실천적 규범의 학문인 예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⁴⁾ 결국 禮學時代라 불릴 만큼 이 시기에는 많은

禮學者들이 배출되었고 禮書의 간행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畿湖學派의 沙溪 金長生과 嶺南學派의 寒岡 鄭述 등을 들 수 있다. 沙溪 金長生의 예학은 그 뒤 아들 金集이 계승하여 宋時烈, 宋浚吉, 張維, 鄭弘溟 등에 이어졌고, 寒岡 鄭述의 예학은 張顯光, 許穆 등으로 계승되었다.

市西 金敏은 비록 沙溪의 문하에서 직접 공부하지 않았으나 항상 스승으로 여겨 선생의 높은 學德과 人品을 흠모하였다. 또 그는 沙溪의 高足弟子인 谿谷 張維를 비롯 愼燭齋 金集, 崎庵 鄭弘溟 등 師門의 많은 유학자들과 교유를 하였다.

을해년(1635) 市西의 나이 68세 되던 해, 11월 1일 밤 그는 老驪의 모습으로 그토록 그리던 사계선생을 꿈속에서 만난 뒤 그 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大賢之後寢然委	위대한 현인의 후생으로 높고 높은 모습이고,
挺出東方作我師	동방에 우뚝 나와서 나의 스승이 되었네.
遇遇固宜當暗代	세상을 피함은 진실로 암울한 세상에 알맞고,
人君胡未展明時	임금을 이꿈을 어찌 성군의 시대에 퍼지 못할까?
雪庭恨失生前拜	눈이 쌓인 뜰에서 생전에 인사드리지 못했음을 한하고,
蘭室欣承夢裡儀	난초 향의 방에서 꿈속의 모습을 받들이 기쁘구나.
自幸精神猶在幹	다행인 건 정신이 아직도 팔팔함이니,
應令蒙老悔無遺	응당 어리석은 늙은이 회한이 남지 않으리. ¹⁵⁾

金長生(1548~1631)은 본관이 光山으로 자는 希元, 호는 沙溪이다. 祖父는 지례현감을 지낸 金鎬이고, 父는 대사헌을 지낸 金繼輝이며, 母는 우참찬 申瑛의 딸인 平山申氏이다. 아들은 愼燭齋 金集이다. 그는 宋翼弼, 李珣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워 조선중기 禮學의 泰斗가되었다. 그는 성품이 너그럽고 순박하였으며 문장과 글씨가 뛰어나서 德行君子라 일컬어졌다. 宣祖 임란이후 지방관을 역임하였으며, 光海君 때는 仁穆大妃 폐모논

14) 설석규, 『朝鮮中期 士林의 道學과 政治哲學』, 경북대출판부, 2009, 102쪽.
15) 『市西遺稿』, 『乙亥 十一月初一日, 夜夢, 拜沙溪先生』, 305쪽.

110 古詩歌研究 第27輯

의가 일어나고 北人이 득세하자 낙향하여 예학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썼다. 仁祖反正 이후 西人의 領袖가 되어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끼쳤다. 市西 金敏은 20년 年輩의 沙溪와는 一面識은 없었으나 항상 그의 학문과 인품을 존경하였다. 위 시의 수련에서는 賢人의 후생으로 높은 學德을 지닌 沙溪를 스승으로 자부함을 말하며, 함련에서는 광해군 시대의 亂政과 그 어둠을 뒤로 바른 보필로 임금을 성군의 시대로 인도함을 말함이다. 그러나 생전에 그러한 스승을 問安하지 못해 평생의 한이 되었던 그가 이제 난향이 그윽한 초옥에서 꿈에서나마 沙溪先生을 흠모하게 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경련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을 비켜 갈 수 없듯 이제 그도 老驪이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다행이 아직 정신은 그대로 맑아 꿈에 스승은 만나 보았으나 생전에 찾지 못한 어리석음은 아직도 회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작자의 심회를 미연에서 담아내고 있다.

市西의 나이 69세 되던 인조 14년(1636) 12월에 일어난 丙子胡亂은 仁祖가 淸에 降伏함으로써 침략 두 달 만인 정축년(1637) 1월에 끝이 났다. 시서는 이때의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담은 詩 <聞江都失守> 8首를 지었다. 그 중 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世子告別日	세자가 이별을 고하던 날,
三光應失精	해와 달과 별이 정기를 잃었겠지.
許歸誰問寢	돌아감을 허락해도 누가 침소를 챙길까?
拜別忍登程	이별의 절을 하고 차마 길을 올랐네.
聖淚垂昌闕	군주의 눈물은 대궐에 드리우고,
宸情鎖舊京	군주의 마음은 옛 수도에 잠겨있네.
吾何壽七十	내 어찌 나이가 일흔인가?
恨未早損生	일찍 삶을 버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¹⁶⁾

소현세자와 빈궁, 그리고 봉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가 되어 인질로 데

16) 『市西遺稿』, 『聞江都失守』, 8수, 399쪽.

권을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안타까움과 비통함은 이를 데 없다. 仁祖가 三田渡에 설치된 受降槽에서 淸 태종에게 굴욕적인 降禮를 하고 세자와 대군이 인질이 되어 잡혀간다는 소식을 접한 市西는 북쪽을 바라 보며 통곡하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살고 싶지 않다¹⁷⁾고 말한 뒤 이후 세상일을 사절하고 시와 술로써 시름을 달랬다.

병자호란 후 市西 金璇이 슬프게 탄식하면서 시대를 아파한 작품에 <傷時九歎> 9 수가 있다. 이들 詩 모두가 작자의 안타깝고 분노한 마음을 구절마다 담고 있다. 그 중 한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聖主神功與天侓 성스런 군주의 신기한 공적은 하늘과 나란하니,
十年三遷果爲國 10년에 세 번 옮김은 결국 나라를 위함이었네.
勳臣尙修諸臣黨 공신들은 사지하고 일반 신하들은 당파싸움만 하니,
誰能恤民固國脈 누가 백성을 아끼고 국가의 맥을 공고히 하나?¹⁸⁾

조정에 사람이 없음을 탄식한 이 작품은 聖君의 神功은 스스로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으며, 君主가 10년 동안 3 번이나 遷都를 한 것¹⁹⁾도 결국은 나라의 초석을 굳건히 하기위해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光海의 反正에 성공한 공신들은 이제 그 敎國의 초심을 잃고 사치를 즐기고, 또한 여러 신하들은 당파싸움만 일삼으니 그 분노가 극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 비통과 분노에 찬 구절 마디마디에서 당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작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17) 『市西遺稿』, 『年譜』, 635쪽. “정축년(1637) 15일에 나해룡이 본주에 와서 말하기를 ‘강도가 함락되고 세자빈과 봉림대군이 포로가 되었으며, 우상께서 성을 나서서 강화를 하였으니 이는 최명길의 계책을 쓴 것이며, 세자와 대군이 북쪽으로 출발하였다고 하였다. 북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丁丑十五日, 羅海嶽自本州來言, 江都失守, 世子嬪及風林大君皆被虜, 自上出城, 講和, 用崔鳴吉之計也, 世子及大君北行云, 北望雪涕, 寧死欲無生.)

18) 『市西遺稿』, 『傷時九歎』, 9수, (嘆朝廷無人), 400쪽.

19) 태조 이성계는 즉위 3년(1394)에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였고, 2대 정종은 1399년에 개경으로 천도하였으며, 3대 태종은 즉위 5년(1405)에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단행했다.

2) 安貧樂道

市西는 그의 나이 48세 때인 을묘년(1615)에 과거를 포기하고 향린인 나주의 竹林에 조그마한 亭子를 짓고 五樂亭이라 扁額한 뒤 詩作과 讀書로 隱逸하였다. 그 다섯 즐거움은 兄弟, 妻子, 시와 술, 그리고 安貧과 樂道이다. 그것은 곧 朝鮮中期 道學者 市西 金璇의 삶을 살펴볼 때 조금도 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는 ‘五樂’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아! 복은 것덜보다 가벼운데 이를 실을 줄 아는 이가 없고, 화는 땅보다 무거운데 이를 피할 줄 아는 이는 없으니, 가까이 눈에 차지 않은 영광을 좇으며, 스스로 짐체만큼 큰 지욕을 취하는구나! 가난하면서도 즐기고 궁하면서도 의를 잃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서쪽 산록에 작은 집을 짓고 ‘오락’이라는 편액을 붙인 바는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이다. 옛날의 이른바 삶을 온전히 하고 수명을 다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즐기는 것이 어찌 다 참된 즐거움이라! 저것을 즐기는 것과 이것을 즐기는 것이 다름이 없다면, 이러한 즐거움은 누가 이를 정하게 하는 것인가? 온통 거짓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무하유자향(無何有之鄉: 어떠한 인위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樂土)에 가까이 빠져들면 무엇이 근심이고 무엇이 즐거움일까? 말아서 높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바램이다.”²⁰⁾

市西는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즐기고, 궁하면서도 의를 잃지 않는 것이 참된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결국 道理가 아닌 것은 버리고, 理致에 가까운 것을 얻어 즐거움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비단 老莊의 無慾만이 아닌 儒者가 취해야 할 선비정신과도 같은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섯 즐거움을 표현한 5首의 詩 作品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 『市西遺稿』, 『五樂亭記』, 533-534쪽. “噫! 福輕乎羽, 莫之知載, 禍重乎地, 莫之知避, 則肯逐不滿眼之榮, 自取大如屋之辱哉! 貧而樂, 窮不失義者, 此言謂何哉? 余所以構小舍于西籬, 良有以也. 古所謂可以全生, 可以盡年者, 其在此歟! 雖然, 余之樂其真樂耶? 其樂彼與樂此, 無以異, 則此樂其誰使定之? 放散四假之級, 甘歠何有之鄉, 孰爲憂, 孰爲樂也? 卷而歸之於寥天, 一其庶矣.”

- (1) 九齡萱落奉椿堂, 9세에 모친 돌아가시고 부친을 받드는데,
 八十年當氣力康, 여든이 되어도 기력이 건강했네.
 無故弟兄中一妹, 형제가 무고하고 그 가운데 누이 하나.
 生孫生子引而長, 손자 낳고 아들 낳아도 늘어 길구나.²¹⁾
- (2) 腰金頂玉靑雲迴, 금을 허리에 차고 옥을 머리에 두르는 청운은 멀고,
 驅馬高車紫陌通, 네 썰의 말이 끄는 높은 수레는 대궐로 통하네.
 爭似打頭茅屋下, 초가 아래에서 싸움을 하듯 머리를 천장에 처지만,
 對妻携子願年豐, 아내 바라보고 아들 데리고 풍년을 바라네.²²⁾

(1)은 형제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9세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서로 옷을 물려 입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놀기도 했던 형제, 자매들이 장성하여 子孫을 두었어도 그 和樂함이 변함이 없으니 이 또한 작자에게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2)는 처자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仁祖元年(1623 : 癸亥年)에 입금이 바뀌고 조정과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니 京鄕 각지의 從遊하는 知友들이 그가 산림에 묻혀 있음을 애석히 여겨 수차 과거응시를 종용했으나 市西는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하였다. 말과 재물, 그리고 수레와 관모는 결코 그가 즐기는 바가 아니었다. 차라리 작은 草屋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裕陵參奉, 自如察訪, 貞陵參奉의 벼슬이 계속 제수되었으나 市西는 결국 나가지 않았다.

- (3) 三盞徑醉便成癡, 세 잔에 곧장 취하여 바보가 되며,
 散秩青箱不欲披, 푸른 상자의 흩어진 책은 피고 싶지 않구나.
 幽鳥短簷警午枕, 짧은 처마에서 그윽한 새가 낮잠을 깨우는데,
 起來時詠子昂詩, 일어나서 때로 진자양의 시를 읊는다.²³⁾

(3)은 시와 술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市西는 원래 술을 좋아하지

21) 『市西遺稿』, 「右兄弟樂」, 534쪽.
 22) 앞의 책, 「右妻子樂」, 534쪽.
 23) 앞의 책, 「右詩酒樂」, 535쪽.

는 않았지만 성기지는 않았다. 열여덟 살까지 술에 취해 글씨를 읽고 쓸 줄을 몰랐던 陳子昂²⁴⁾과는 달리 질그릇 술 세잔에 취해 바보가 되어버리지만 깨어나 초옥에서 伯玉의 시를 읊는 것 또한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시서는 “어려서부터 시를 무척 좋아하였으며, 고문 읽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짧은 시에 힘을 들였다.”²⁵⁾ 라고 한 술취한 것에서 유년 시절부터 시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음을 보게 된다. 그가 생전에 1200餘 首의 詩作品을 쓴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다.

- (4) 朱門酒肉日千錢, 붉은 집의 술과 고기는 날마다 천 전이요,
 鮪膳馳羹爛錦筵, 청어 반찬에 고기의 국이 비단 연회에 흐드러지네.
 小鼎二紅茶數椀, 작은 술의 거친 밥에 자 몇 잔이라도,
 噴籠絕勝五侯鮮, 게걸스럽게 먹으니 제후의 식사보다 훨씬 낫구나.²⁶⁾
- (5) 掩軒單衣度四時, 정강이를 가린 홑옷으로 사계절을 지내고,
 居無坐席出無騎, 거처에 좌석이 없고 나갈 때 말이 없구나.
 聞道伯龍爲鬼笑, 듣자니 백룡도 귀신의 비웃음을 샀다하니,
 自然天損我何私, 당연히 하늘이 더는 것도 내 사사로운 여기리?²⁷⁾

위 시(4)에서는 야채와 잡곡밥(菜糲)의 즐거움을, (5)에서는 빈궁(貧窮)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시 (4)(5)에서 權門勢家의 늘어지는 盛饜은 아니지만, 거친 밥과 나물일지라도 맛있게 거르지 않고 먹는다면 어찌 제후의 식사에 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분수에 따라 사는 것이 어찌면 榮華로운 제후의 삶보다 훨씬 낫다는 의미이기도하다. 벼슬을 단념하고 科擧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이 四海를 집으로 삼았던 伯龍²⁸⁾의 삶 또한

24) 陳子昂(661~702), 자는 伯玉, 중국 初唐 때의 시인으로 한위(漢魏)의 풍골(風骨)을 중히 여겨 강건 중후한 시를 지음으로써 初唐에서 盛唐으로 넘어가는 시풍전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작으로는 <感遇>의 38 수 등이 있다.

25) 『市西遺稿』, 「自序」, 3쪽.

26) 『市西遺稿』, 「右菜糲樂」, 535쪽.

27) 앞의 책, 「右貧窮樂」, 535쪽.

28) 梁辰魚(1521~1594), 중국 명나라 희곡작가, 자는 伯龍, 호는 仇池外史 성격이 호랑하여 과거보기를 단념하고 유랑하며, 시와 산곡, 율체에 심취하였다. 그는 <금

그와 다름이 없다. 분수에 있어 더함과 덜함은 하늘이 준 본분이기에 사양도 거역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 역시 자신에게 정해진 본분을 가장 편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市西 金璇(1568~1642)은 조선 중기 나주 출신의 학자요 문인이다. 그는 宣祖, 光海君, 仁祖시대를 살면서 壬·丙兩亂은 물론, 광해군의 亂政과 仁祖反正 등 많은 內憂外患을 겪으면서도 명분과 대의를 잃지 않고 선비의 道理를 다한 儒學者이다.

市西는 광해 원년(1609)에 나주 錦陽書院에 대한 賜額上疏를 조정에 올려 '景賢'의 額號를 하사받았다. 孔孟程朱의 전통유학을 治國의 根本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위해 사당을 세워 賜額함으로써 賢人을 配享하는 것이 옳은 도리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광해2년(1610)에 道內 儒林의 疏頭가 되어 東方五賢에 해당하는 조선의 대표적 성리학자인 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 등 다섯 현인을 文廟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직접 지어 올렸다. 이는 前代의 己卯, 乙巳年의 土禍로 인한 사회적 퇴폐분위기를 일신하고 正統儒學의 正論을 확립하여 文風을 통한 學問的, 社會的 教化를 이루고자하는 의도에서이다.

市西 金璇은 道學者이기에 앞서 시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시를 좋아하여 고문 읽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고, 짧은 시에 힘을 들였었다. 시서가 남긴 1200여 수의 시 작품은 시에 대한 그의 평생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市西 詩의 性情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憂國之情이다.사

곡전기>를 지었으며 <완사기>는 그의 대표작으로 중국 곤곡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회적 진실이 문학적 진실이듯 그가 處했던 시대와 사회가 倭亂, 胡亂, 反政 등 안팎으로 위기였기에 나라와 君主에 대한 단순한 哀傷과 念慮가 아닌 悲憤慷慨한 憂國의 어조를 수편의 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는 安貧樂道이다. 市西는 을묘년(1615) 그의 나이 48세 때 과거를 포기하고 鄕里에 五樂亭을 짓고 그곳서 여생을 보냈다. 형제, 처자, 시와 술, 거친 음식, 貧窮을 五樂으로 삼았다. 그의 시 全篇에는 功名과 物慾이 묘사되지 않았다. 儒者로서 한번쯤은 立身揚名을 그릴 수 있으나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즐기고, 窮하면서도 義를 잃지 않는 것이 참된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老莊의 無慾이 아닌 儒者의 분수로 市西는 그것을 가장 편하게 여겼고 또 그의 삶처럼 그의 시에서 즐겼던 것이다.

참고문헌

- 나주시, 『國譯 市西遺稿』, 2003.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全南圈文集解題』, 1997.
설석규, 『朝鮮中期 士林의 道學과 政治思想』, 경북대출판부, 2009.
최영성, 『한국유학사상사』, 아세아문화사, 1995.

투고일 : 2011년 1월 1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118 古詩歌研究 第27輯

<Abstract>

A study of sisa kim seon's life and poetry

Kim, kuy-suck

This paper has been considered about sisa. Kim seon(1568~1642) life and poetry. he is Naju birth the middle of the Joseon Dynasty. he is scholar and writer.

he is not government post. The Kwanghe bestowed. Kury Won Sewon Because he's ohynsewon with draw an appeal. he was an distinguished confucianism scholar and poets. he's fond of poetry, about make produce 1200 poetry His poetry was characterized and a patriotic spirit.

He is a patriot who always concerns himself with the nation future. the poetry are eloquent of his expression. his to give up the gwageo exam in 1615 at the age of 48. live in hometown. he's enjoyed on br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poem. and alcohol. and a hill of food and poverty that Nojang's greelless.

Key words : without a government office (布衣), distinguish confucianism (正統儒學), concerns nation (憂國之情), enjoy poverty (安貧樂道), Nojang's greelless (老莊의 無欲)